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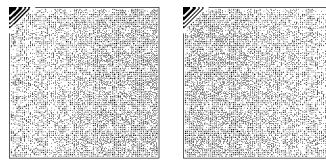


새 보 란

Saeboram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5년 3월 263호

(02) 796-4280 www.kappd.or.kr

3 뉴스
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

12 특집 I
장애인 직업재활 일본 견학

13 특집 II
기관탐방 '더해봄'

18 국제
뉴욕의 장애인 우버기사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5월 개최 9일 잠실종합운동장 스타트...정상급 선수들 대거 참가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5월 9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린다(사진:22회 대회 모습).

오는 5월 세계 정상급 휠체어 마라토너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울도심을 후끈 달군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5월 9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를 개최한다.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국내 유일의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공인 대회로 매년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명실상부한 국제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3년에 열린 22회 대회에서 대회 신기록과 아시아 신기록을 경신해 이번 대회 기록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당시 1시간 20분 52초로 가장 먼저 폴코스 결승점을 통과한 스위스의 마르셀 혹은 2008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어니스트 반다이크가 세운 대회 신기록(1시간 21분 46초)을 넘어섰다. 마르셀 혹은 0.07초 뒤져 2위를 차지한 일본의 호키노 우에 코타는 아깝게 우승을 놓쳤지만 아시아 신기록을 수립해 박수를 받았다.

올해는 기존에 치러지던 전문 휠체어 육상 선수들의 풀(42.195km)·하프(21.0975km), 휠체어 생활체육 선수들의 5km 경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5km 어울림 종목에 전문 핸드사이클 하프(21.0975km) 종목을 추가했다.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조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하며, 참가비는 무료다(www.seoul-wheelchairmarathon.or.kr).

한편 지장협은 3월 초부터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수들의 사고 예방과 대회 개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지장협과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공동주최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KBS 한국방송이 후원하며 신한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찬한다.

장애인당사자주의 바탕으로 목소리 낼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 취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가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2월 27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정·관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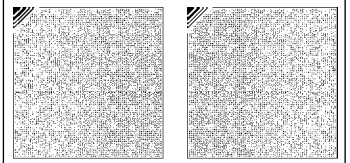
이번 이·취임식에는 국회의원 이석현 부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장총련 회원단체장, 각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안진환 상임대표는 “근육·청각·척수·정신장애 등 소수장애인의 복지는 여전히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폭력·인권유린 등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뼈아픈 자화상이며 현재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이제는 장총련의 시선을 여기에 고정시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깃발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 당사자의 이익 우선과 배치된다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도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면 정파에 경도된 정파운동·비즈니스적 운동방식을 지적했다.

끝으로 안 대표는 “열등감과 무기력이 지나간 자리에 장총련의 최대가치인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다시 꽃피워 장총련의 정신을 살려내겠다”면서, “장애인 당사자와 호흡하는 장총련, 정확하게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장총련,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면서 소신있게 정부를 견제하는 장총련으로 거듭나겠다”는 강한 포부를 밝혔다.



장애인, 꿈을 드라이브하다!

‘장애인차량 · 운전지원추진연대’ 출범

차량 운전은 장애인의 이동권

장애인의 자가차량 운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계 연대 기구인 ‘장애인차량 · 운전지원추진연대(이하 장차연)’가 공식 출범했다.

장차연은 2월 13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출범식과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차량의 운전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서 장차연은 “차별 없는 이동권과 이동수단 선택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고 소외받는 최종증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이동권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 진출을 확산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많은 단체들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선 요구

장차연은 현재 대중교통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실제 이용하기에 아직도 저상버스가 부족하고 지하철 역사 편의시설이 미비해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자가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취득제도 개선, 운전 교육, 차량



‘장애인차량 · 운전지원추진연대’가 이룸센터에서 출범식과 토론회를 열었다.

개조지원 등의 제도개선을 이끌어 나가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현대 · 기아자동차에서 복지차량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조수석 시트 회전, 휠체어를 들어 올리는 설비 장착 등 우리나라 장애인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운전장치와 휠체어 사용자 운전석 탑승 지원이 결핍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남세현 교수는 2013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전제 노선버스 대비 저상버스 확

보율은 16.4%에 불과하며 특별운송수단 운행대수도 2890여 대로 등록장애인 866명당 차량 1대꼴로 운영하는 등 지역 간 이동이 심각하게 제약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남 교수 등 5명이 지난해 말 장애인 263명, 친인척 72명, 활동지원인 62명 포함 총 4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차량 관련 수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가 일상생활, 출퇴근 등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장애인차량을 보유했다. 이들 중 18%가 운전 · 탑승 보조장치를 개조했다. 72%는 차량 개조 후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응답했으며, 이동 및

외출 빈도는 월평균 15회 이상이나 증가했다.

개조차량에 불만족하는 응답이 40%에 달했는데 이유는 높은 개조비용, 부적합한 제작, AS 미흡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은 장애인용 차량개조, 운전 보조 장치 구입 관련 정부 비용 지원제도 신설을 강하게 희망했다. 무려 80%가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국, 독일, 영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이 차량을 운전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남 교수는 이러한 현실 개선 방안으로 ▲장애인복지법 관련

조항을 개선해 장애인 자동차 탑승 및 운전보조장치에 대한 포괄적 지원 제도 도입, ▲국민건강보험법의 보장구 급여 지원 장애인 특례에 차량용 보조장치 포함 검토 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임숙영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 자가차량 운전이 가능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지, 서비스는 어떻게 전달할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철재 급여관리실 부장은 “공단은 국민의 질병 · 부상 · 출산 등 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보장구 급여를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속성을 감안할 때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사용할 개인용 차량 개조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차량 · 운전지원추진연대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교통 약자가 다니기 편한 도시 1위 ‘서울’

2위 부산...광주 2회 연속 꼴지

대도시 중 서울이 장애인 · 고령자(65세 이상) 등 교통 약자가 다니기 가장 편한 지역으로 뽑혔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승객 등 교통 약자는 2013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약 25%인 1278만 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 이

동 편의 실태 조사를 발표해 지역별 편차가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7대 특별 · 광역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이 종합 1위에 올랐다고 2월 16일 밝혔다.

서울은 도시철도까지 포함한 평가 결과 교통수단의 기준 적합 설치율, 여객시설 접근로 보행환경, 저상버스 보급률 등

에서 가장 높은 82.1점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부산(74.3)과 인천(72.9)이 각각 2위와 3위로 뒤를 이었다. 광주는 2012년에 이어 최하위에 그쳤다.

도시철도를 제외한 평가에서는 인천이 보행자 사고율, 고령자 · 어린이 사고율,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

산은 순위가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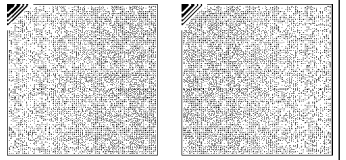
교통수단, 여객시설, 접근로 보행시설 등의 기준 적합률은 전체 73.2%로 2012년(71.3%)보다 1.9% 올라갔다.

교통수단별 서비스는 항공기(98.2%)가 가장 높고 노후 선박이 많은 여객선(17.1%)이 가장 낮았다. 여객시설별로는 철도역사(82.2%), 공항터미널

(82.2%)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버스터미널(51.5%), 버스정류장(47.3%) 등은 서비스 질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 만족도는 항공기가 67점으로 가장 높았고 여객선은 60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고용과장 개방 요구 잇따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3월 2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장애인고용과장 관련한 공식 입장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고용을 총괄하는 장애인고용과장이라는 직위는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이미 2004년부터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을, 문화체육관광부도 2007년부터 장애인체육과장을 민간 출신 장애인 당사자로 개방해 임용하고 있다. 이점을 들어 고용노동부만 장애인고용과장(1990년 설치)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는 공식 질의도 포함했다.

"장총련과 회원단체는 고용노동부가 개방형 직위제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부터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루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도 3월 4일 성명서를 통해 "장고협 토론회에서 주영순 의원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과장 개방직 전환을 적극 검토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음에도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위공모제 형식으로 과장을 또 다시 임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는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 주무부처로서 역량이 미흡하고 해결할 의지도 부족해 타 부서에 의지해 장애인 고용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장고협이 '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제는 장애인 고용안정의 시대”

장애인고용과장 개방형 직위 전환 요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2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향현, 이하 장고협)와 주영순 의원이 '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심재철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이사장 등 내빈과 청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에 관한 열띤 의견이 오갔다.

1991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정부는 다양한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을 실시해 45만 명 이상의 직업상담과 14만 명 이상의 장애인 취업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그동안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은 장애인 고용촉진에만 초점을 맞춰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적 안정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있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근무 시간은 비장애인보다 짧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32.3%인데 반해 장애인 근로자의 비

정규직 비율은 59.1%.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장애인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발제를 맡은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는 장애인 고용이 불안정한 이유로 ▲장애인의 임금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수준이 낮음,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기업문화,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근로조건 등을 꼽았다.

이어서 "지금은 고용촉진에서 고용안정으로 노동시장 환경이 변화하는 시점"이라며 "장애인 고용정책은 고용촉진 정책을 유지·발전시키는 동시에 고용안정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근로기준 마련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를 명시한 최저임금 적용제외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라는 인식과 낙인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적용제외 규정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고려, ▲장애인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규정 마련, ▲구직급여 수

급요건에서 장애 고려, ▲장애인복지법의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근로자의 특례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의 경우 ▲법 제정 목적에서 고용안정 강조,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우선규정,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규정, ▲인사과정에 장애인 의사 반영, ▲원스톱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본격적 토론에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노동상담센터장은 "장고협 노동상담센터에 의뢰한 장애인근로자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15.9%나 된다"며 "현재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영근 기획정책국장은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로 비장애인이 꺼려하는 저임금, 저 기술 일자리 고용이 주종을 이룬다는 점"이라며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양한 고용서비스 지원책, 고용 차별 금지, 고용 형태 다각화, 직업재활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노경희 직업재활팀장은 "구인정보를 제공하다보면 구인업체에서는 양질의 전문 능력을 바라면서도 장애인이니 급여는 적어도 괜찮다는 인식이 만연하다"며 "현재 직업재활 사업들이 장애특성과 직업적 능력에 맞게 일자리를 개발하고 훈련하는 부분을 조금씩 채워 장애인 고용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노 팀장은 "장애인 고용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야 한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더욱 세밀하고 기민한 장애인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장애인 고용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을 주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보완을 강조했다.

토론에 함께한 고용노동부 이상희 장애인고용과장은 "지금껏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노력해왔지만 이제는 고용안정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장애인의 일자리와 질을 모두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자립생활 안착 모색

한자연, 2015 자립생활 컨퍼런스 개최

전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립생활의 날을 기념하고 정책 및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세상을 바꾸는 장애인 당사자의 힘! 담대한 실천적 자립생활 운동으로 깨어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다!’라는 주제로 3월 5~6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2015 자립생활 컨퍼런스는 한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안진환, 이하 한자연) 주최로 8회째 개최됐다.

한자연은 3월 5일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며 자립생활 발전에 이바지한 센터와 개인을 시상하며 격려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센터부문은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지역 센터 5곳을 설립하고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을 인정받았다. 개인부문은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류나연 소장, Good Job 자립생활센터 강현욱 부소장,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응범



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무국장이 수상했다. 각각 장애인 인권과 권익옹호를 위해 장애인 복지정책 개발 및 제도화에 솔선한 공적이 결실을 맺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상은 해 뜨는양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인순 사무국장, 경남아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미옥 사무국

장,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민휴 팀장,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웅 팀장이 받았다. 국회의원장 수상자는 지난 1월 활동보조인 교육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故구근호 소장으로, 생전에 지역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기틀을 잡고 동료상담가 양성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안진환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법적으로 보장된 지 약 10년이 되어가는 시점”이라며 “자

립생활 정책에 대한 현장·학계·정부의 입장과 관점을 점검해 깨어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자립생활의 중장기 발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념행사 이후 현장·학계·정부의 입장에서 자립생활의 주요 쟁점인 탈시설, 활동지원제도, 고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립생활 안착화 방안을 살피며 대안을 찾는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장애인자립생활의 날이자 컨퍼런스 2일차인 6일엔 지자체의 IL센터 운영 현황 및 발전 방향 토론, 자립생활 체험홀 운영 방향 제안, 동료지원모델 중심의 자립생활센터 운영, 신생 IL센터 설립부터 지역사회 안착,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전략 및 개인예산제의 흐름과 전망까지 총 5가지 주제로 소분과 토론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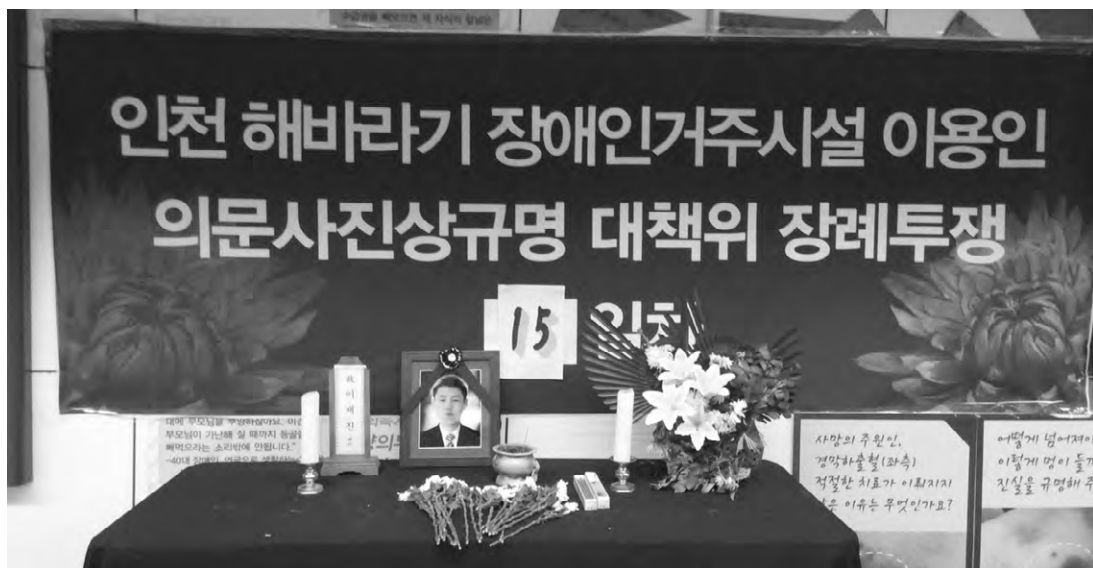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故구근호 소장의 추모행진을 벌이며, 장애인 당사자의 힘으로 실천적인 자립생활 운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피명투성이 시설거주인 의문사...학대 의혹 제기

대책위, 정부에 진상규명 요구

지난 1월 28일, 온몸에 피명이 든 채로 병원에 실려 왔던 장애인시설 거주인이 사망했다. 유족과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시설의 학대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가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 이 모(29세·지적장애1급)씨가 지난 해 12월 25일 시설에서 의식을 잃고 경기도 시흥 시화병원에 후송되며 알려졌다. 입원 당시 오른 쪽 눈과 몸, 옆구리, 허벅지 안쪽, 정강이, 발등 등 전신에 원인 불명의 피명이 든 상태였다. 이 씨는 병상에서 35일간 사투를 벌인 끝에 좌측 두부 경막하출혈(뇌를 둘러싼 경막 안에서 외부 충격 등으로 혈관이 파열돼 출혈이 일어난 것)로 사망했다.



광화문역에 차려진 시설거주인 이 모 씨의 분향소.

시설의 폭행 의혹을 제기한 가족에게 돌아온 답변은 이 씨가 단순히 넘어져서 다쳤다는 것. 이에 유족은 인천 지역 장애인

단체들로 구성된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해 의문사 진상규명에 나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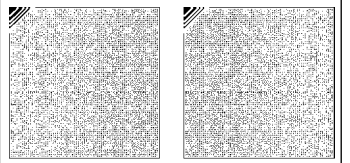
대책위는 2월 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했

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 씨가 입원할 당시 일반적으로 넘어져서 생길 수 없는 부위까지 전신에 피명이 있었다는 것. 또 고인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차례나 병원 진료를 받을 만큼 빈번하게 부상을 당했음에도 시설에서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고인을 방임한 의혹도 제기했다.

따라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나서 폭행, 안전조치 방임 등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대책위는 이번 사건이 “정부의 시설 중심 장애인 정책이 만든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하며, 시설 중심 장애인 정책을 폐기하고 탈시설 정책과 제도를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2월 24일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이 진입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복지부가 이 씨의 의문사 진상 조사에 나서 주기를 호소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목재문화진흥회 업무 협약

목재 문화 진흥과 장애인 복지사회 구현 공동 노력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목재문화진흥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와 목재문화진흥회(회장 강호양)가 목재문화 진흥과 장애인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월 13일 서울 서초구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목재 문화 진흥과 장애인 복지 환경 개선을 통해 상생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15년에는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나무 누런터 조성을 확대하고, 장애인 대상 목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공동 추진한다. 향후 장애인 목공 교육을 통한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양 기관의 시설과 공간을 공동 활용하기로 약속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목재 문화와 장애인 복지의 결합은 힐링 시대인 오늘날에 부합

하는 좋은 만남”이라며 “친환경 목재로 장애인 생활환경을 개선하면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목재문화진흥회 강호양 회장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친 건강 소재인 목재를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즐기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꾸준한 협력을 다짐했다.

장애여성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지원 필요

임신 · 출산 넘어 포괄적 재생산 과정에 대한 지원 요구

“장애여성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관련 의료 정보와 산부인과 병 · 의원 접근성 등을 개선해야 한다.”

“서울시 장애여성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 양육을 위한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조례(가칭)」 제정이 필요하다.”

정책연구기관 ㈜오픈엔진20 배선희 대표가 2월 25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김영한 서울시의원 후원으로 주최한 ‘장애 여성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공청회에서 제기한 내용이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장애여성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방안’ 공청회 전경.

따르면, 장애여성이 임신 기간 중 겪는 애로사항으로 장애아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23%, 병원비 부담 16%, 건강 악화에 대한 두려움이 11%로 나타

났다.

장애여성이 원하는 서비스로는 육아지원서비스 16.1%, 장애여성 전문병원 11.8%, 출산비용 지원 9.4%, 가사도우

미 9.4%, 건강관리 프로그램 8.9%로 육아와 의료에 대한 욕구가 주를 이뤘다.

배 대표는 “장애여성도 임신 · 출산 · 양육에 있어서 장

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성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장애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무장애산부인과 병 · 의원 서비스 기준 법제화, ▲권역별 장애여성 친화 산부인과 병원 지정, ▲장애여성 산모를 위한 의료용 보장구 개발 및 보급, ▲장애여성 산모 임신출산용품 대여센터, ▲장애여성 전용 · 통합 공공산후조리원 보급, ▲여성장애인 임신 · 출산 · 양육 지원조례(가칭) 제정 등 14가지로 이중에서도 배 대표는 지원조례 제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시 보건 의료정책과 박유미 과장도 “이번 연구과제가 서울시 추진 사업과 비슷한 점이 있다”며 조례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인권위, ‘장애인 콜택시 안전장치 기준’ 마련 권고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벨트 등 세부기준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헌병철, 이하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장애인 콜택시 안전장치 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한 내부 안전장치의 세부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준 마련과 함께 안전사고 사례 집과 안전장치 사용법을 담은 책

자를 제작 · 배포할 것도 권고했다고 3월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 차량 주행 중 휠체어 고정 장치가 풀리거나 느슨하게 묶여 휠체어 탑승자가 뒤로 전도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차량 회전 및 급정거 시 안전벨트 착용 중임에도 차체에 부딪히는 등의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인 1 · 2급 중증장애인 개개인의 장애 유형 및 특성, 휠체어 형태 등을 모두 고려하기 곤란해 세부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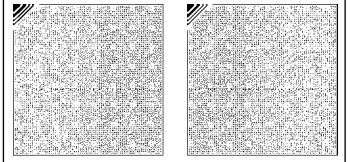
특별교통수단은 차종 및 차량의 제작년도, 구조변경 정도 등에 따라 차량의 안전장치 모양이나 설치 위치 등이 상이하다. 일

반적으로 휠체어 앞 · 뒤 바퀴 각 2개를 차량 바닥면에 고정시키는 벨트식 고정장치(4개)와 휠체어 사용 탑승자를 위한 안전벨트, 휠체어 전면 및 측면 방향에 설치된 안전손잡이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 유럽, 호주 등은 특수교통수단의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휠체어를 2인치 이상 움

직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유럽은 휠체어 탑승자용 안전장치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관련 검사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휠체어 고정 장치에 관한 표준 규정을 마련해 휠체어 유형별, 휠체어 제작사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았다.

인권위는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장치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설비”라며 “안전장치를 신뢰할 수 없다면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워 이동권 보장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밝혔다.



한국수어법 제정 본격 논의

관련 법안 입법공청회 개최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법률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2월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회의실에서 한국수어법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현재 교문위에서 검토 중인 ▲정진후 의원 발의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의 「한국수화언어 기본법」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의 「수화기본법안」 ▲새누리당 이예리 사 의원의 「한국수어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고자 열렸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는 “언어권은 인격 형성과 인간다운 삶 유지에 필수 요소이므로 생명권과 함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국민의 언어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2월 2일 국회에서 한국수어법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말했다. 이어서 “수어 관련법 제정은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쟁점사항으로는 ‘수화’와 ‘수어’의 단어선택이 떠올랐다. 우교수는 설문조사 결과 농인 당사자들은 수어를 선호했다고 밝혔다. 수어를 옹호하는 견해로 수어는 언어의 의미를 강조하는 데

비해 수화는 의사소통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

반대로 수화를 옹호하는 견해는 수화가 역사성과 일반적인 대중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용어에 ‘화’나 ‘어’가 붙었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반드시 수단이나 언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둘을 절충해 ‘수화언

어’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 한국수어를 음성언어와 함께 공용어로 선언하는 것이 전체인데, 이는 각 나라의 언어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도 전했다. 우리나라는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공용어로 정했지만 공용어는 반드시 다수 사용인구 기준으로 정하

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뉴질랜드는 일상 언어인 영어와 함께 인구의 10~15%인 마오리족 언어를 공용어로 인정했다. 이어서 2006년에는 ‘뉴질랜드수어’를 세 번째 공용어로 제정했다. 당시 청각장애인은 5000명이었다.

한국농아인협회 이미혜 사무총장은 “현행 국어기본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청각장애 치료를 지원하거나 수화통역 근거를 마련할 뿐 농인이 처한 차별과 소외를 개선할 근본 방안이 없다”며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농인의 공용어임을 선언해 농인의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공청회에서는 ▲5년마다 수립되는 한국수어발전기 본계획 규정 ▲심의자문위원회로서 한국수어심의회 설치 ▲청각장애인의 가족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준 ‘장애인복지관’ 1위

영천장복, 정읍장복 등 79% A등급 획득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장애인복지관 79.7%가 A등급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보건복지부가 3월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2014년도 평가를 실시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11개 시설유형에 대해 3

년 주기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다.

평가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총 6개 영역을 분석했다.

평가 결과, A등급 시설은 전체 498개소의 65.7%(327개소)로 지난 2011년 45.5%대비

20.2% 증가했다. D, F 등급을 받은 미흡시설은 3.6%(18개소)로 1.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79.7%가 A등급으로 평가, 시설 유형 중 운영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규모시설과 신규진입시설이 많은 사회복지시설

은 52.3%가 A등급으로 평가 대상 시설유형 중 가장 낮게 평가됐다.

아울러 2011년도에 하위등급(D~F 등급)으로 평가돼 품질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은 시설의 84.2%(19개의 시설 중 16개의 시설)가 2014년도 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했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으로 선정된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제근 관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우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수정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개별시설에 통보해 시설운영 개선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상위 우수시설과 크게 개선된 시설에 정부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낮은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다.

건널목 녹색 신호 장애인에게겐 짧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장애인보호구역 확대 건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아래 솔루션)은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확대하고 건널목 녹색신호 시간을 연장하도록 경찰청과 17개 시·도에 정책 건의했다고 3월 4일 밝혔다.

현재 ‘교통 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보행자신호 시간 계획에 따르면 건널목 녹색신호 시간은 초기 진입시간 4~7초에 건널목 거리를 1m당 1초로 환산해 더한 값이다. 장애인·

노인·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녹색 신호 시간을 정할 때 건널목 거리를 0.8m당 1초로 환산해 더 긴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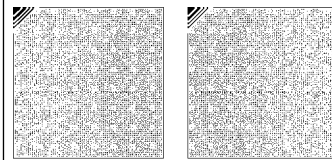
그러나 솔루션은 규정을 지키

지 않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뀌고 녹색 불이 켜지기까지의 시간이 1~2초로 짧아 발달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이 건널목을 건너다 크고 작은 사고를 겪게 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2013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보호구역 지정 현황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1만 5136개소, 노인보호구역 593개소와 비교해 장애인보호구역은 28개

소로 보호구역 지정률이 상당히 낮았다.

이에 솔루션은 ▲보행약자인 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 등 장애인의 왕래가 잦은 구간에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보호구역 내 건널목의 녹색신호 시간 0.8m당 1초를 준수하고 보행 전 대기시간을 3초로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광주 · 대전 · 경북 지체장애인 협회장 취임식

장애인 복지 향상 다짐



3월 12일 열린 경북지체장애인협회장 취임식 기념촬영 모습.

광주와 대전 지역 지체장애인 신임 지도자들의 취임식이 열렸다. 먼저 2월 6일 메종드보네르

에서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제8대 이재홍 협회장 취임식 및 9대 최남규 협회장 취임식

을 개최했다.

이날 박항 광주광역시 건강복지국장, 장병완 국회의원, 임내현 국회의원 등 50여 명의 내빈을 포함해 3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최남규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투명한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서 2월 9일에는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가 구자권 협회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백춘희 정부부시장, 김인식 시의장, 설동호 교육감, 박병석 서구갑 국회의원, 박범계 서구를 국회의원, 이장우 동구 국회의원, 김영호 배재대학교 총장, 한현택 동구청장, 박수범 대덕구청장 등 내빈을 포함해 15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구자권 협회장은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협회와 5개구지회가 단합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나아가자”고 밝혔다.

또 3월 12일에는 한국국학문화회관에서 경상북도지체장애

인협회 김영식 협회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김영식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협회발전, 회원배가 운동 등을 통한 장애인 권익신장을 목표로 저를 비롯한 자문·고문·부설단체장들이 함께 노력하겠다”며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정창진 안동부시장, 새누리당 경북도당 권영희 부처장, 이용두 국학진흥원장, 지역인사 등 450여 명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다.

세종지장협, 국민연금공단 공주시사 업무협약

장애인 복지증진 협력키로

세종특별자치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정금중, 이하 세종지장협)가 국민연금공단 공주시사(지사장 유인규)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월 16일 세종지장협 사무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종지장협 임직원과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장애인지원센터(공주, 세종, 대전) 센터장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단에서 시행하는 노후 설계 서비스, 장애인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에 서명하며 협력을 다짐했다.

세종지장협 정금중 협회장은 “국민연금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며 2015년 기획사업으로 핸드사이클 국토대장정과 장애인 스키캠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유인규 지사장은 “향후 공단에서도 사회공헌, 봉사활동, 장애인 체육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공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현명한 가정경영, 우리가족 행복총전’ 강좌를 소개했다.

세부 주제로 노후자금, 합리적 금융생활, 국민연금활용법, 건강



세종지장협과 국민연금공단 공주시사가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관리, 보험관리, 가족대화법, 시간경영, 상속 등 8가지 분야의 커리큘럼이 있다고 밝히며 세종지장협과 연계해 진행하기로 했다.

끝으로 국민연금공단 공주시사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세종시 장애인 복지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세종지장협에 격려를 보낸다며, 설맞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대구지장협 임·직원 워크숍 ‘Dream Team’

업무계획 발표와 역량 강화 교육



대구지장협이 임·직원 워크숍을 실시했다.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창환, 이하 대구지장협)가 2월 10~11일 1박2일간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워크숍

‘Dream Team’을 실시했다.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은 대구지장협 및 산하기관의 업무계획

발표와 다양한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직원 간의 교류 및 정보공유를 통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화합의 시간에는 장기자랑을 통해 끼를 발산했다.

김창환 협회장은 대구지장협 임·직원이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 이야기하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일 하는 한편 임·직원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대구지장협과 산하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로 힘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대문구 지체장애인 전진대회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 기여 선언



서대문구지회가 ‘서대문구 지체장애인 2015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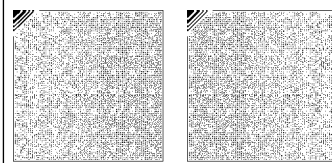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사회발전 기여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체장애인 2015 전진대회’가 열렸다. 2월 3일 서대문구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손영호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우상호, 정두언 국회의원 등의 내외빈과 7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물놀이 애오개, 아재나 밴드의 식전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본 대회는 황재연 서대문구 지회장의 개회선언과 내외빈 소개, 표창장 수여, ‘우리의 신조’ 낭독으로 마무리 됐다. ‘우리의 신조’에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믿는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우리의 일로 국가에 헌신

한다.’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이 자리에서 김광환 중앙회장은 치사를 통해 “오늘 전진대회를 기회 삼아 서대문구 1만 3천여 명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회원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예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확대해 나갈 의사를 밝혔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고문인 정두언 국회의원도 장애인 인식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밖에 모든 내외빈들이 장애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경기도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상반기 워크숍

장애체험행사와 장애인편의시설 점검 등 활동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산하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이하 도민촉진단)이 상반기 워크숍 및 위촉식을 진행했다.

2월 11~12일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진행한 이번 워크숍은 도민촉진단 요원 127명을 위촉하며 시작했다. 이어서 2015년도 노유자시설 실태조사에 대한 교육과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는 장애체험 활동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에 관해 토론을 펼쳤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시·군 도민촉진단 핵심요원이 2015년 사업 목표를 발표해 각 지역의 활동 내용을 알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장애체험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테마를 정해 연 1회



경기도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이 상반기 워크숍 및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상 실시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홍보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도민촉진단은 3월부터 11월 까지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 장애체험행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 9월까지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을 점검 할 예정이다.

이어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기호, 이하 경기도

장협)는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제11기 시·군지회장 및 북부출장소장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박2일 일정으로 자체 강의 7건, 외부 강의 2건으로 청강과 실습 및 토론을 진행했다. 교육을 통해 지회장으로서의 역량강화 및 경기지장협의 미래비전을 토대로 지회 발전방향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지장협 관계자는 “우리 협회 미래비전 중 하나인 ‘폴뿌리 지장협’처럼 31개 지회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해 나가는 도약의 발판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리더로서의 자질을 일구고 지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유익한 교육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지장협 후원회, 떡국떡 나누기

장애인·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대상 200박스 전달



대전지장협이 어려운 이웃에게 떡국떡을 후원했다.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후원회(후원회장 최영환, 이하 대전지장협 후원회)는 설을 맞아

어려운 장애인 가정을 위한 ‘사랑의 떡국떡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2월 14일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복지관 이용자, 대전지장협 5개구 회원들에게 떡국떡 200박스를 전달했다.

대전지장협 후원회는 매년 장애인 가정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이웃을 살피고,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후원회 관계자는 “2015년에도 장애인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14회 장애인 및 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인천 동구 장애인 2015년 활동 다짐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지회장 오현택, 이하 동구지회)가 새해 첫 공식 행사로 ‘제14회 장애인 및 가족 한마음축제(척사대회)’를 개최했다.

3월 3일 동구지회 앞 게이트볼장에서 열린 한마음축제는 임순봉 인천지체장애인협회장, 이흥수 인천동구청장과 김기인 구의회 의장, 각 지회 지회장 및 내·외빈 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동구지회 회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행사는 인사말, 축사, 격려사에 이어 그동안 지역 장애인 복지 향상의 사명감을 갖고 꾸준히 헌신한 회원에게 표창장을 시상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임순봉 협회장은 “성황리에 제14회 장애인 가족 한마음축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한 회원 분들과,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며 “올해도 한마음 한뜻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자”고 말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나눈 연탄 3000장

상주시지회, 성금 모아 6가구에 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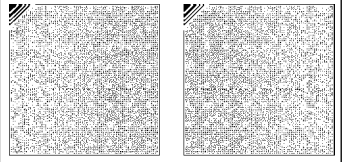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훈훈한 나눔이 펼쳐졌다. 난방에 곤란을 겪고 있던 지역 저소득 지체장애인의 사정을 알게 된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상주시지회(지회장 이영범, 이하 상주시지회)가 연탄을 지원했다.

이번 나눔은 상주시지회의 분회장들이 동절기 난방비 걱정을 덜어 주고자 계획해 각 지역에서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연탄 3000장을 구입했다. 회원들은 직접 6가구에 배달하며 온기를 전했다.

이영범 지회장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도움이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다”며 “모든 분을 살피지 못해 아쉽지만, 작은 정성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상주시지회가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탄을 후원했다.



세상으로 가까이 가는 한지공예

김천시지회 여성자립지원센터 교육 개강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 여성자립지원센터(센터장 박선하)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세상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문예고리 한지공예' 교육을 개강했다.

3월 10일 김천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개강식은 박선하 센터장, 한지공예 김상숙 강사와 여성 장애인 활동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성자립지원센터 문예고리 한지공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김천시지회 여성자립지원센터가 한지공예 교육을 개강했다.

운영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자립과 주체성 확립을 도와 참

여자의 성취욕구와 만족도를 높인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우

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올해 교육은 개강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간 수업을 진행한다.

박선하 센터장은 “요즘 따뜻한 봄 길에 돌아나는 봄풀처럼 여성 활동가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기쁘다”며 “여성 활동가의 가능성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주체가 되는 삶이 가족에게도 행복의 원동력이 되기에 가장 안정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포항시지회, 2015 장애인 일자리사업

오는 10월까지, 포항시 거주 장애인 대상

포항시에서 2015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지회장 이경목, 이하 포항시지회)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번 사업은 3월 3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진행된다. 포항시지회는 사업 시작에 앞서 2월말까지 포항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접수받아 총 41명을 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사업기간 동안 흥

해·연일·청하복지회관, 청림일월포도공원, 대보호미곡광장, 구룡포읍민도서관, 장애인재활작업장 등 포항시내 각 지정장소에서 일하게 된다.

포항시장장애인취업지원센터 이수정 씨는 “일자리사업은 단순히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소 고용



포항시지회가 진행한 장애인 일자리사업 오리엔테이션 모습.

시장에서 많은 벽에 부딪치는 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들과 다름없이 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노동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장애 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 보급함으로써 장애인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덕군지회, 춘계한국중등축구연맹전 차 나눔



영덕군지회가 춘계한국중등축구연맹전에서 차 나눔을 진행했다.

영덕군에서 열린 춘계한국중등축구연맹전에서 경상북도지체

장애인협회 영덕군지회(지회장 김대환, 이하 영덕군지회) 회원들이

차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1월 25일 영덕군 공설운동장 일대에서 열린 축구대회에 모인 선수 및 관객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차를 전달하며 정을 나누고, 자연스럽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도록 노력했다.

최상순 여성회원 단장을 주축으로 펼친 이날 봉사활동은 차 나눔에 그치지 않고 축구 꿈나무들을 향한 뜨거운 응원으로 이어지며 대회를 달궜다.

김대환 영덕군지회장은 “영덕에서 열린 전국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보람을 느꼈다”며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개소

보호자 일시적 부재 시 이용



문경시장예인단기거주시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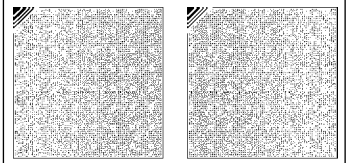
경북 문경시에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 생겼다. 3월 개소한 문경시장예인단기거주시설(시설장 박종훈, 이하 문경단기시설)은 이용자를 모집하며 중증장애인 단기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문경단기시설은 보호자의 일시

적 부재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이다.

위치는 문경시장예인종합복지관 옆인 경북 문경시 시청2길 34이다. 수용인원은 10명이며, 기간은 1일(24시간) 단위 혹은 최장 1개월까지 시설 이용가능하다.

이용 대상자는 문경시 거주 등록 장애인(1~3급)이 우선이며, 만 9세부터 입소가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용료가 감면된다. 더 궁금한 점은 전화(054-556-0604)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북부장북, 환경미화 및 장애인식개선캠페인

개관기념일 맞아 노원구 주민 만남



서울북부장북이 환경미화 및 장애인식개선캠페인을 진행했다.

서울시립북부장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손영호, 이하 서울북부장북)은 복지관 개관 17주년을 맞아 개관기념일인 2월 27일 노원 거리의 환경미화 및 장애인식개선캠페인을 진행했다.

노원구가 시행하는 금연프로젝트와 더불어 노원구 주민의 건강을 위한 환경개선 활동과 연계하여 진행한 이날 캠페인에는 노원구 김승애 의장을 비롯해 노원구의원 5명이 참석했다. 서울북

부장북은 구의원들과 함께 중계역과 마들역에서 환경미화 및 장애인식개선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서울북부장북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만나며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즐거운 소통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복지관과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깊게 자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장북-한화 아산1·2사업장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지원 약속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과 (주)한화 아산1·2사업장(대표이사 김연철)이 손을 잡았다. 3월 10일 (주)한화 아산2사업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약속했다.

이날 (주)한화 아산1·2사업장 공장장인 유정상 상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복지관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장애인 선수들의 멋진 경기 모습과 열정을 기대한다는 격려도 덧붙였다.

이창호 관장은 “장애인 복지



아산장북이 한화 아산1·2사업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매년 후원과 자원봉사를 헌신적으로 참여 해주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주)한화 아산1·2사업장은

장애인복지관과 매년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과 장애인농구클럽대항전, 어울림배드민턴대회, 장애청소년체육대회, 배드민턴동호회, 당구 및 탁구동호회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직원들의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재가장애인과 함께 통합사회 구현에 노력하고 있어 주위 기업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장애인농구클럽대항전·어울림배드민턴대회·장애청소년체육대회 및 장애인생활체육동호회 사업 등에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아산시장장애인복지관 문화체육지원팀(041-545-7727, 7710)으로 연락하면 된다.

의정부동부새마을금고, 의정부장북에 후원금품 전달

장애인 복지 성금 200만 원 등



의정부동부새마을금고가 의정부장북에 후원금품을 전달했다.

의정부동부새마을금고(이사장 윤석송)가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

복지관(관장 김인숙, 이하 의정부장북)에 후원금품을 전달했

다. 2월 7일 새마을금고 앞에 임직원과 줌도리봉사단(회장 유명숙)이 모인 가운데 전달식이 열렸다.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성금 200만 원과 쌀 522kg, 라면 16박스를 기증한 윤석송 이사장은 “이익금을 소외계층인 장애인분들 위해 사회에 환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의정부장북 김인숙 관장은 의정부동부새마을금고에 고마움을 표현하며 “후원받은 소중한 금품을 소외 계층과 장애인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정월대보름 척사대회’ 열려

진천장북, 진천로타리와 전통놀이



진천장북이 개최한 ‘정월대보름 척사대회’의 모습.

진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한명수, 이하 진천장북)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공동체의식을 담은 전통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정월대보름 척사대회’를 개최했다.

3월 4일 진천장북 앞에서 장애인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속놀이의 백미인 윷놀이 한마당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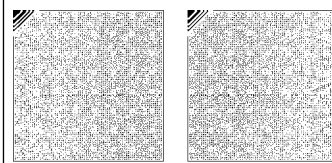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치르는 동안 한쪽에서는 환호성이 터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승기를 놓치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우승팀이 결정되자 큰 박수로 시상할 때까지 승리팀을 축하했다. 이밖에 전통놀이 체험인 제기차기·떡메치기·투호 등 전통놀이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관에서는 한해 건강을 기원하며 오곡밥을 무료로 제공했다. 진천로타리와 진천양조장은 간식을

후원해 놀이를 즐기는 주민들의 흥을 돋웠다.

이번 행사는 진천장북이 평소 여가 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전통놀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계획한 것. 행사에 참여한 김동순 이용고객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윷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어 정말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명수 관장은 “정월대보름 행사를 통해 일상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통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본 관이 지역주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세탁은 뽕송하게, 마음은 상쾌하게”

충남남부장복 ‘이동세탁지원서비스’ 운영



충남남부장복이 이동세탁차량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충청남도남부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대혁, 이하 충남남부장복)은 2월 25일부터 지역 내 가사수행능력이 어려운 독거 재가장애인 및 노인 가정을 위해 이동세탁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매주 5회 실시하는 이동세탁 지원서비스는 각 지역으로 직접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 및 노인 가정의 이불 및 의

류 등을 세탁에서 건조까지 지원한다.

충남남부장복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읍·면·동사무소 및 각 마을 이장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비스 대상자와 장소를 협조 받아 이동세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세탁서비스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장애인의 위생과 청결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임대혁 관장은 “이불과 의류 등 세탁에 어려움이 있는 재가장애인 및 노인 가정에 이동세탁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세탁지원서비스 관련사항은 충남남부장복 지역·권익 옹호팀(070-4372-2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 구성 행복나눔 봉사단 발대식

괴산장복, 지역 내 장애인식개선 기대

충북 괴산군에 장애인 자원봉사단이 생겼다. 괴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호선, 이하 괴산장복)은 2월 24일 복지관 강당에서 장애인들로 구성된 ‘행복나눔 봉사단’ 발대식을 실시했다.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자 21명이 참가한 발대식은 정호선 관장의 인사말, 단원 대표 임명장 수여, 봉사단 선언문 낭독 순서로 진행됐다.

괴산장복 관계자는 “행복나눔 봉사단은 자원봉사 활동을 훈련하고, 지역사회와의 이해증진 및 책임감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결성했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장애인으로 구성된 행복나눔 봉사단이 발대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서 봉사를 하며 지역 내 장애인식개선까지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발대식 후 다함께 괴산군 지역 내 위치한 산막이 옛

길에서 환경미화를 진행했다. 산막이 옛길 관계자는 즐겁게 환경미화를 한 봉사단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장애인식개선을 위해서도 돕겠다고 전했다.

달성장복, 현대자동차와 차량 소독

달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우선, 이하 달성장복)은 현대자동차 달성지점 지원으로 지역 장애인 차량 관리 서비스를 진행했다.

3월 10일에서는 실시한 이번 연계서비스는 제조사와 관계없이 달성군 지역 내 장애인 차량 소독, 향균, 탈취 서비스를 제공했다.

달성장복 관계자는

“이번 차량 소독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다”며 “지속적인 연계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달성장복이 현대자동차 달성지점과 장애인 차량 소독 서비스를 펼쳤다.

정읍장복 등산동아리 2015년 첫 등반 목포의 눈물-유달산 코스



정읍장복 등산동아리가 유달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형, 이하 정읍장복) 등산 동아리(대표 유상열)가 목포의

눈물-유달산으로 2015년 첫 등반을 다녀왔다.

2월 25일 회원 6명이 모여 함

께 끌어주고 밀어주며 유달산을 올랐다. 지체장애 2급인 유상열 대표는 “맑은 공기 마시며 함께 등산을 해서 정말 기분이 좋다”며 “장애로 인해 평소 등반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번처럼 잘 준비해서 연간 등산활동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리 회원들은 유달산에서 새해 소망을 나누며 함께 건강한 한해를 보낼 수 있기를 기원했다.

정읍장복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조적인 동아리 형태의 사업을 확대하고 스스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성장복, 정월대보름 ‘부럼나누기’



유성장복이 정월대보름 맞이 부럼나누기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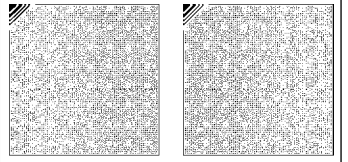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손성도)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장애인에게 부럼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3월 4일 복지관 로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한전원자력연료(주) 후원으로 부럼

300명분을 준비해 장애인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전달했다.

이어서 정월대보름인인 3월 15일에는 척사대회 청백전을 통해 지역 장애인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손에손잡고 육성회 육성회 산하 인쿠르토타바 앞에서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탐 방

중랑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박세향 원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의회는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간 일본으로 2015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직업재활시설장 20명 등 22명이 참석해 일본의 성공적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돌아보았다.

12일에 도착해 먼저 손에손잡고 육성회 산하 인쿠르토타바를 방문했다. 인쿠르토타바는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과 3년 전부터 우호결연을 맺은 곳이다. 그동안 직원연수 등을 진행하며 교류를 해 왔다.

일본의 직업재활시설은 취업계속A형(근로사업)과 B형(작업활동)으로 나뉘는데 인쿠르토타바는 B형으로 행주와 소평백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으로 인한 매출에 대한 의미부여는 적어서 세부 통계가 없지만, 자신의 일자리가 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일하고 있었다. 이 곳은 그룹홈과 긴급일시보호 등으로 장애인이 가족과 떨어져 독립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게 특징이다.

다음 날엔 태양의 집 ‘오므론 타이요’를 방문했다. “세상에 심신장애인은 있어도 일에는 장애가 있을 수 없다”, “보호보다는 기회를” 이것이 태양의 집 창립이념이다. 1969년 창립해 생활재활 위주로 진행하다 1972년 오므론 주식회사를 창설했다. 장애인들이 출자해 시작했는데 스스로 출자를 하다 보니 지속적인 흑자로 회사가 커지고 이에 호응한 기업이 하나 둘 모여대 큰 단지가 됐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 대부분 전종업원 중 1.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워야 하는 노동법 규정을 지키고 있다. 모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순수한 동기로 장애인 고용을 늘렸다. 혼자 별도공장까지 합하면 장애인 수는 정사원 278명, 시간제 근로자 42명으로 총 320명이다.

체육활동에도 관심이 많아 별도의 체육관 시설을 갖추었다.

휠체어농구를 시작으로 양궁, 마라톤 등으로 확장해 지금은 오이타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일본의 직업재활시설은 직업과 생활 모두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호의 개념보다는 고용 개념이 강하다.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도 가족을 떠나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맞춤형 보조공학기가 선진화되어 있으며, 공정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공정을 맞추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무작정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환경미화, 지역자치회의 참여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며 녹아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재활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같은 제도적인 측면은 앞서 있지만 원스톱 서비스나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현실적 성공 사례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겠다.

“보호에서 자립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일본을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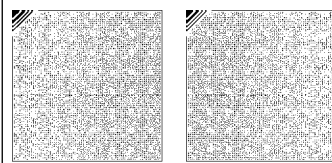
오므론 타이요 전경.



오므론 타이요 주 생산품 소켓.



오므론 타이요 공장.



이춘희 원장

서비스업으로 돌파구 찾아 생산성과 복지 함께 달성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에 있는 더해봄(종로구립장애인근로사업장)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과 근로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인 독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1997년 개소해 비닐봉투사업부터 시작했다. 제조업 중심으로 근로활동을 펼치던 것을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꿔 현재는 지하철택배와 카페사업을 벌이고 있다. 50명의 장애인이 근로하며, 훈련생을 제외한 전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정도로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한 사업장으로 올라섰다.

■ 지하철택배사업



지하철택배

직업재활시설은 대부분 제조업이나 단순임가공 사업을 하고 있다. 제품생산은 경제 상황에 따라 재고 부담이 크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적었기에 2003년부터 지하철택배사업을 통해 서비스업으로 전환을 시도했다. 이를 시작으로 제품생산에 대한 재고 부담이 줄고 안정적인 매출증가를 이뤄 37명까지 채용을 확대했다.

김재중 팀장은 “접수, 물건 분담, 배달 등을 전산화하고 분업화해서 중증 장애인 근로자 비율을 늘린 것이 고무적이다”라고 밝혔다.

■ 카페사업

기존의 비닐봉투사업을 정리하고 2012년 새롭게 카페사업을 시작하며 종로3가에 커피아리 1호점, 2013년 종로5가에 2호점을 개점했다. 현재 장애인 13명이 근로 중이다. 장애인을 고용한 다른 카페사업장들을 보면 비장애인 중심으로 일하며 장애인 근로자를 보조로만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카페아리는 장애인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 근로사업장들 중 가장 높은 매출을 자랑하는 카페로 성장했다.

더해봄 이춘희 원장은 사업의 성장 동력으로 ‘커피의 품질’과 ‘서비스’를 꼽았다. 카페 임대료를 내지 않고, 고용장려금을 받기 때문에 최고급 원두를 쓰면서도 저렴한 판매가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는 커피아리 김민정 점장이 커피 제조부터 서빙, 매장관리 등 모든 부분에 일정한 규칙을 적용해 빠른 회전과 단골 확보를 가능케 했다. 김 점장은 “처음엔 모두들 경력이 없었기에 서투르고 힘들었지만 업무를 분업화하고 반복하면서 능숙해졌다”고 밝히고 “이제는 자신있게 모든 메뉴를 척척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커피아리는 매장 판매 이외에 더치커피 주문 판매도 진행하고 있다. 더치커피는 뜨거운 물과 높은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추출하는 에스프레소와는 달리 차가운 물과 중력만으로 한 방울, 한 방울 추출해 풍미가 뛰어나며 카페인 함량도 적다. 선물용 250ml 9000원, 500ml 1만5000원, 1000ml 2만5000원이고 주문은 02-2279-0660으로 하면 된다.



커피아리 김민정 점장과 근로자들.



더치커피 판매.

“일을 한다는 것 자체로 행복해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요. 매일 웃음이 끊이질 않지만 특히 월급날 표정이 제일 밝아요. 월급은 자립과 가계 부양의 자양분이니까요. 그 행복한 미소를 볼 때 저도 무척 행복합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자립을 위해 혹은 부양 가족을 위해 매일 정직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더해봄’ 이춘희 원장은 근로자들을 떠올리며 미소지었다. 사업장을 운영하며 가장 보람 있는 점으로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게 된 안정적인 급여를 들었다. 비닐봉투사업과 같이 제조업 중심이던 때는 수익창출이 어려워 급여가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 서비스업인 지하철택배와 카페사업으로 변경한 후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설명이다.

임금 인상은 자립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기에 근로자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사업장 분위기도 좋아졌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동료라는 이름으로 잘 어울리며 서로 돕는 모습도 종종 본다. 이 원장은 “사업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직장이 아니고 직업재활시설이기에 공동 교육이나 여가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며 “일뿐만 아니라 공동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기능이 향상되는 근로자들을 볼 때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기관명칭을 종로구립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더

해봄’으로 바꿨다. 이전 기관명은 종로구, 장애인, 근로, 사업장 모두 보통명사로 이루어진 기관 명칭이었지만 이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내세워도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해 이 원장은 “지금도 택배와 카페 고객들이 장애인을 돕기 위해 이용하기 보다는 서비스 자체가 마음에 들어 이용하고 있거든요. 장애인근로사업장인지도 모르는 고객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고심 끝에 종사자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근로자들이 중심이 되어 의지를 더하고 뭔가 열정적으로 으샤으샤 해보자’는 정신과 ‘The 해(Sun), 봄(Spring)’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봄기운을 받아 저희 더해봄 희망의 씨앗을 퍼뜨릴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장애인근로자 수를 50명에서 70명까지 채용하고, 현재 98만 원 정도 받는 월급을 1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사업을 확대하고자 목표를 두었고, 카페도 올해 안에 3호점을 개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발전방향에 관해 “열악하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기존 사업에만 안주하지 말고 공적영역의 일부나 제조업을 탈피한 블루오션을 찾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랑과 결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협회장 · 고수영 여사

순수한 소녀와 테리우스



사랑으로 서로를 지켜 온 김기호 협회장과 고수영 여사.

그 남자 이야기

저는 1955년 첩첩산중 작은 마을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6·25가 끝난 지 몇 년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렵고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 막내인 저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가정형편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음주가무를 지나치게 좋아하셔서 밖으로 도쳤고, 가여우신 어머니가 집안을 지탱하셨습니다. 아버님은 결국 병환을 얻으셨고 어머니가 수발을 드시느라 혼신의 힘을 쏟으셨습니다.

어느 날 어린 저는 마당에서 혼자 뛰어 놀다 무릎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고열과 통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이라 병원엔 엄두도 못내고 집에서 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상황도 힘들었기에 어린아이의 아픔과 고통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어머니의 극진한 간호에도 그만 가족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막내인 제 몸이 낫지 않자 어머니는 아픈 저를 이리저리 데리고 뜸과 침 치료에 매달리셨습니다. 어떻게든 고치겠다고 백방으로 다니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왼쪽 다리를 쓸 수 없는 큰 장애를 얻었습니다. 몸이 불편할 뿐 저는 여전히 씩씩한 개구쟁이였습니다. 산과 들을 누비며 밝게 자랐습니다. 제가 즐겁게 웃어도 어머니는 늘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책

감으로 편할 날이 없으셨던 어머니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저는 구두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삶이 무엇인지도 모를 나이에 산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배워 나갔습니다.

순수한 소녀와의 만남

세월이 흘러 둘째 형이 있는 성남으로 올라와 양화점에 취직했습니다. 형과 형수의 뒷바라지로 상경에 어려움 없이 잘 지내다 가게를 차려 독립했습니다. 그 시절 형과 형수의 따뜻함과 고마움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독립한 저는 오토로서 제 사업장에 애착을 갖고 더욱 일에 매진했습니다. 쌀쌀한 가을 문턱에 들어설 무렵 제 인생에 동반자이자 든든한 지원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 결혼에 대한 생각도 했지만 연애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제게도 운명적인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하얀 피부의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허름한 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맞추고 돌아간 후 전 재료를 준비하고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순수한 얼굴의 소녀가 생각났지만 다른 신발들을 만들며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소녀는 신발을 받아간 후에도 제 가게에 거의 매일 놀러와 재잘재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로만 가득했던 제 삶에 그 소녀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며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여자 이야기

사실 남편을 처음 본 것은 어머니와 구두를 맞추러 간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 날보다 며칠 전 오후 보충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남편을 처음 보았습니다. 보는 순간 두 번 놀랐습니다. 첫째는 몸이 불편한 사람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저렇게 잘생긴 사람은 처음이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정만화에 나오는 테리우스 같았습니다. 긴 머리에 살짝 파마를 한 듯 일렁이는 머리와 짙은 눈썹.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왜 몸이 불편한지 생각했습니다.

구두를 맞추러 간 날, 제 기준엔 두 번째 만남이기에 더 반가웠습니다. 그 후 매일 놀러가다 시피 했습니다. 과묵하면서도 점잖은 아저씨가 편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부르지만 저는 친오빠가 없기에 ‘오빠’라는 말이 편하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저씨와 제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놀러 가면 편한 음성으로 왔나고 할뿐 특별히 잘 해주지도, 반겨주지도 않는 아저씨인데 이상하게 점점 좋아했습니다. 이게 사랑인걸까. 안 보면 보고 싶고, 뭐 하나 궁금한 제 모습을 보며 아저씨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며 결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먹구름 같은 불안과 걱정이 밀려 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에 대한 아저씨의 사랑도 깊어졌습니다. 아저씨는 가게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저는 옆에서 재잘거리는 게 우리의 데이트였습니다. 남들처럼 밖에서 유원지 나들이, 꽃놀이 같은 것을 한 번도 가지 못했지만, 한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지만, 결혼을 반대하실 부모님 걱정이 자리했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행복 찾아 결합

어느 날처럼 가게에서 함께 있다가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그와 떨어지기 싫은 마음에 집에 가기 싫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아저씨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저를 막지 못했고,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함께 한 지 3일이 지나자 남동생의 제보로 어머니가 저를 찾으러 가게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께 알리지 않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왔다는 어머니의 얼굴에 근심이 서려있었습니다. 숨어 있던 저는 어머니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반가운 마음에 나와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할 말을 잊은 표정으로 두 팔 얹고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아저씨는 제게 들어가라고 했지만, 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저씨에게 화를 내며 나가셨고 그 날 저녁 아버지까지 오셨습니다. 결국 끌려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집에 돌아 온 저를 설득하려 온 힘을 다했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저씨 가게에 절 데리고 가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살아보라고, 단 결혼식은 못 시켜 준다고 하셨습니다. 친인척 다 불러서 식 올리고 안 살면 무슨 망신이나고. 너희가 열심히 살면 인정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우리 무거운 마음으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두 달 후 임신을 해서 기뻐지만 어려운 형편이기에 외식은

꿈도 못 꾸고, 병원 한번 못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밥 한번 안 해봤고, 교복도 스스로 빨아본 적 없던 제가 남편을 위해 밥과 빨래를 하는데 힘들기는커녕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무얼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기쁨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런 저를 몹시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 할 것이라고도 말하셨습니다. 임신해서 입덧이 심할 때는 어머니 밥이 그리웠지만 냉랭한 어머니께 밥 한 끼도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운한 마음도 제 행복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탄탄한 가정을 일구기 위해 알뜰하게 살면서 수입의 95%를 저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시절이라 집에서 애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빨래와 청소를 마치고 진정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께 집에서 낳겠다고 말씀드린 후 진통과 싸우기를 몇 시간. 오후 5시 40분에 큰아들 태회를 건강하게 낳았습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살며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큰아들이 다섯 살 되었을 때 성남에 집도 사고 양가 부모님께 인정받아 당당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부로서 한 가정을 꾸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 때때로 남편에게 서운해 미운 마음이 들려 할 때도 이상하게 그이 얼굴을 보면 모난 마음이 눈 녹듯 녹습니다. 정말 우리 남편은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랍니다.



평생 동반자로 함께하는 부부

제31회 국제의료기기 · 병원설비전시회

3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전시장 전관에서 개최된 제31회 국제의료기기 · 병원설비전시회(KIMES 2015)가 국내외 7만 2천여 명의 참관객을 모으며 성황리에 폐막했다.

‘오늘의 건강, 내일의 행복’을 주제로 열린 이번 KIMES 2015는 한국이앤엑스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KOTRA,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등 관련기관과 단체가 후원했다.

올해는 530개사의 국내 제조업체를 비롯해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 이탈리아, 스위스 등 34개국 1천 145개사의 업체가 참가해 첨단의료기기, 병원설비, 의료정보시스템, 헬스케어 · 재활기기, 의료관련용품 등 3만여 점을 전시 소개했다.

전시관은 △치료가기 및 의료정보관 △헬스케어 및 재활기기관 △진단 및 검사기기관 △진단

국내 최대 의료기기 · 병원설비 전시회, KIMES 2015 폐막

미국, 중국 등 34개국 1,145개사 참가, 7만 2천여 명 관람



제31회 국제의료기기 · 병원설비전시회 개막식 모습.

및 병원설비관 △의료기기 및 부품 특별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영상진단장비사인 국내의 삼성전자/삼성메디슨, DK메디칼시스템, 리스텍, JW중외메디칼, 메디엔인터내셔널, 알파니언메디칼시스템, 챔스메디컬, SG헬스케어 등은 물론 GE, 도시바, 후지필름 등 세계적인 기업

들도 참여했다. 또 헬스케어의 자원메디칼, 바이오스페이스, 소독기의 한신메디칼, 의료정보의 비트컴퓨터, 약품포장기를 생산하는 JVM, 물리치료기의 대성마리프, 스트라텍, 레이저치료기의 루트로닉, 의료용품의 인성메디칼 등 국내외 대표적인 기업들도 참가했다.

삼성메디슨은 다양한 영상의학과 진료에 프리미엄 솔루션 초음파진단기를, 삼성전자는 원 터치로 촬영 위치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디지털 엑스레이를 선보였다. Toshiba Medical은 또 가볍고 선명해진 하이엔드 초음파 장비로 이목을 끌었다. 비트컴퓨터의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에 발맞춰 인터넷 망을 통해 영상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공개했다.

아울러 미키코리아에서는 고강도 알루미늄 프레임 적용으로 경량화를 실현한 유 · 아동용 유모차형 휠체어를, 보령수앤수에서는 무릎재활에 특화된 전기자극 근육치료를 선보였다. 아이미르에서는 척추장애인, 녹약자들의 상하지를 자동으로 운동시켜주는 재활기기를, 보필에서는 성인용보행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등 각종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복지용구 생활지원용품을 선보였다.

전시회 기간 동안 COEX 컨퍼런스 센터에서는 △의료산업 정책세미나 △의료인을 위한 특별강좌 △의료산업 및 의학술 세미나 △Global Trade Conference가 열렸다. 이와 더불어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서울시 물리치료사회 학술대회 등이 총 101회의 주제로 줄지어 진행됨으로써 전문의 및 의료 관계인에게 수준 높은 의료정보를 제공했다.

장애인전문 EXPO!!

www.ableexpo.or.kr

Able EXPO 2015

2015 장애인복지 & 보조기기 박람회

4. 29(수) ▶ 30(목) 10:00~17:00 SETEC 제3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동시 개최 & 부대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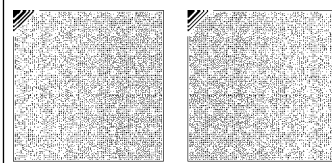
2015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
첨단 재활로봇전시회
진동휠체어 체험 & 무료 AS센터 운영
보조기기 학술대회 & 컨퍼런스

참가업체 모집

대상업체 장애인 보조기기 제조 및 유통 관련업체
참가비 조립부스 60만원 / 독립부스 50만원(VAT별도)
참가문의 (02)2672-5662 / Fax (02)2672-5663
홈페이지 www.ableexpo.or.kr

재활보조기기 | 이동 · 편의시설 | IT 보조기기 | 첨단 재활로봇 | 헬스케어기기 | 기관 · 단체 홍보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61 4층 복지정보센터 Able EXPO 2015 사무국 www.ableexpo.or.kr
TEL 02-2672-5662, 02-2676-9935 / FAX 02-2672-5663 / ableexpo@naver.com



한박강정 ‘봄을 기다리는 봄’ 전시회

자폐성 작가 4인의 예술 소통



왼쪽부터 정도운, 박태현, 강선아, 한부열 작가.

‘The 한박강정(한부열, 박태현, 강선아, 정도운)’ 4인의 전시회가 개최됐다. 2월 26~28일까지 3일간 동대문 DDP 갤러리 문에서 강남장애인복지관(관장 허명환, 이하 강남장복) 주관으로 열린 ‘봄을 기다리는 봄’ 전시회

에 관람객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강남장복의 관내 작가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뭉친 이들은 자폐성장장애인으로, 각자가 살고 있는 특별한 세계를 작품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이중 “그림이란 즐거운 놀이”이며 “그림 그리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한부열 작가는 일상의 모습을 주제로 펜과 30cm 자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 그 뒤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으로 표현하는 결과물은 예측불허의 새로움으로 나타난다. 기본 도형과 원색을 사용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평면의 캔버스 위에 입체적인 세상을 입히는 독특한 세계가 들어 있다.

휴지와 색종이를 잘라 입체 캐릭터를 만들어 내는 박태현 작가는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작가는 작품이라는 명칭보다 친구라는 친근한 이름을 사용한다. 따라서 그의 작품

명은 ‘박태현과 친구들’이다. 그는 생명을 불어넣듯 하나하나 다양한 표정으로 갖가지 놀이를 하는 친구들을 만들어낸다.

한편, 강선아 작가의 작품에는 소녀 감성이 스며들어 있다. 하루 종일 파티를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신나있고, 활기찬 에너지가 넘실댄다. 자신을 토끼로 표현하며, 즐거운 표정으로 캐릭터화 한 인물과 동물을 짝치게 담았다. 그녀의 붓 앞에서는 모든 이가 평등하다. 인종과 종족을 뛰어 넘어 모두 친구가 되고, 자유롭게 소통한다.

뛰어난 드로잉 실력과 글과 사진을 활용한 콜라주가 돋보이는 정도운 작가는 남성스러운 멋을 뽐내며, 자신이 좋아하는 연애

인이나 힙합에 관심이 많아 주된 소재로 활용한다. 드로잉과 색채를 선택하는 감각, 콜라주를 이용해 작품에 특색을 입혀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강남장복 정원일 문화사업팀장은 “건조한 현대사회에서 자폐성장장애 작가들의 작품이 즐겁고 행복한 힐링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만의 세계에서 간직해온 순수한 영역들이 그림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전시회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회의 도록과 포스터 디자인은 애니앤제임스의 황교준, 김진수 디자이너의 도움으로 진행됐다.

한 손 피아니스트 니콜라스 매카시 첫 내한

서울, 울산, 화성 등 순회연주

왼손 다섯 손가락만으로 피아노 건반을 터치하는 피아니스트 니콜라스 매카시가 3월 첫 내한 공연을 펼쳤다.

니콜라스 매카시는 3월 13일 울산 현대예술관, 14일 화성 동탄신도시 반석아트홀, 15일 서울 강동아트홀 등을 순회하며 연주했다.

이번 내한공연에서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D장조>와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오른팔을 잃은 폴 비트겐슈타인의 작품을 들려줬다. 또 러시아

음악가 알렉산드르 스크리아빈의 <녹턴 작품9>와 리스트가 편곡한 슈베르트의 <마왕>, 조지 거슈윈 <썸머 타임> 등을 연주해 관객의 박수를 받았다.

1989년생인 니콜라스 매카시는 선천적 장애로 한쪽 손 없이 태어났다. 어린 시절엔 피아노와는 관련 없이 지내다가 15살에 처음으로 전자키보드를 접했다. 피아니스트로 입문하기에는 다소 늦은 나이였지만 건반의 매력에 빠진 그는 즐기며 연습했고, 금세 실력이 늘었다.

그는 18살에 길드홀 음악학교를 거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영국 왕립음악원을 졸업하게 된다. 이로서 가장 젊은 왼손 피아니스트가 탄생했다.

니콜라스 매카시는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서 락그룹 콜드플레이와 파라오케스트라와 함께 8만여 관중이 지켜보는 폐막식 무대를 장식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완벽한 테크닉과 인상적인 표현력을 가감 없이 선보이고 있다.



내한 공연을 마친 한 손 피아니스트 니콜라스 매카시.

영국언론은 그를 “무대 위에 보이는 에너지와 놀라운 재능은 오직 눈부실 뿐이다(더 타임즈).”, “이것은 천재의 터치다(라디오 타임즈).”, “흠결 없는 연주로 청중을 매료시키고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며 세계적 연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다(인디펜던트).”, “두 손 피아니스트들도 힘

들어하는 부분을 니콜라스는 거리낌 없이 관객들에게 보여주었다. 그가 한 손 피아니스트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다(브리스톨 포스트).”라고 소개한 바 있다.

국내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친 그는 큰 박수를 보낸 한국의 관객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배리어프리 영화 무료 상영

서울역사박물관, 3월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일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대표 이은경)와 서울역사박물관(관장 강홍빈)은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역사박물관 토요 배리어프리영화관’을 운영한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역사박

물관 1층 강당에서 열리는 영화관은 박물관의 다양한 이용층을 고려해 전체 관람가 영화를 상영한다.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는 영화 상영을 위해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 토요

배리어프리영화관’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무협약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상영을 통해 문화 향유권 및 상호 이해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문화 복지를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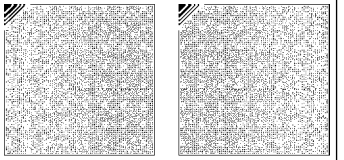
하기 위해 추진했다.

상영영화로는 애니메이션 ‘어네스트와 셀레스틴(감독 스테판 오비에, 뱅상 파타, 벤자민 레네)’, ‘늑대아이(감독 키우라 히로유키)’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영화 ‘터치 오브 라이트(감독 장영치)’, ‘천국의 속삭임(감독 크리스티아노 보르토네)’ 등을 준비했다. 또 올해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에서 제작할 신작들도 ‘서울역사박물관 토요 배리어프리영화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토요 배리어프리영화관은 서울시민을 비롯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www.museum.seoul.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는 02-724-0274로 하면 된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서울 종합우승

대회 MVP 알파인스키 청각장애 박승호 선수

‘환희와 감동 그리고 축제의 한마당’이라는 슬로건으로 제1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열렸다.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 및 서울, 경기도 일원에서 17개 시·도 선수단 754명이 참가해 열띤 승부를 겨뤘다.

9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 김성일 회장은 “이번 대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 포함돼 외형적으로 발전했다”며 “선수들의 땀과 열정이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종합 1·2·3위 대표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차관은 축사로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3년 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

는 값진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이에 정부도 동계스포츠 전략종목과 실업팀을 육성, 계절학교

를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지원을 다짐했다.

이번 대회는 알파인스키, 크로

스컨트리스키,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기존 종목에 바이애슬론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해 총 6개 종목으로 늘어난 가운데 종합우승은 서울이, 2위는 인천, 3위는 강원이 차지했다.

대회 결과 남자 알파인스키 청각장애 박승호(울산) 선수가 2관왕으로 MVP를 수상했다. 동계체전에 참가한 청각장애인 선수로는 첫 수상으로 기록됐다.

12일 열린 폐회식에서는 주요 내빈과 선수 및 임원들이 참여해 4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내년 대회를 기약했다.



아산스마트라이노 슬레이지하키팀이 동메달을 목에 걸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단 2년만에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동메달을 거머쥔 아산스마트라이노 슬레이지하키팀이 주목받고 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복) 소속으로 충남 유일 장애인아이스하키팀인 아산스마트라이노는 전국장

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부산과 전북에게 승리하며 2승 1패로 결선에 진출했다. 4강에서 전원이 국가대표로 구성된 강원도청팀을 상대로 선전했지만 아쉽게 패배, 3·4위전에 진출했다. 예선전에서 1:3으로 석패했던 경기도팀을 다시 만나 4:1로 승리, 동메달을 획득하며 대회를 마쳤다.

아산스마트라이노 슬레이지하키팀은 메달 획득에 그치지 않고, 5월에 개최되는 강남베드로병원배 장애인아이스하키대회 상위 입상을 노리고 있다.

좋은 성적을 거둔 하키팀이지만 연습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후문. 주말에 성남 탄천빙상장으로 훈련을 다니며 2중의 어려움

을 겪었던 속사정이 있었다.

아산장복 이창호 관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하키팀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 아산을 대표하는 팀으로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장애인 전문체육 활성화로 자립의 통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산스마트라이노 슬레이지하키팀 전국 3위 쾌거

아산장복, 창단 2년만에 이룬 성과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5월 개최

80개 국 6000여 명 참가...역대 최대 규모

2015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가 오는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열린다. 2015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손병두)에 따르면 이번 서울대회는 80여 국가에서 총 6000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된다. 이 대회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월 12일부터 2일간 서울에서 대회 조정회의가 열렸다. 주최기구인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대표단과 실무진들이 만나 현안을 점검하고 의견을 조율했다.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조정회의가 열렸다.©2015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

대표단은 전반적인 대회준비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수송과 숙박, 식음료 등 대회지원 계획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조직위원회는 대회 홍보와 경기운영, 대회지원 분야에 대해 세부 진행상

황을 보고하고 대회기간 이용할 경기장과 숙소를 안내했다.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는 국제종합스포츠대회로 1998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4년마다 열리고 있다.

세종시 제1회 어울림 스키캠프 성료

1박2일간 장애인스키 전문 강습

세종특별자치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정금종, 이하 세종지장협)는 세종특별자치시신체장애인복지회(회장 박승희)와 공동 주관으로 1월 30~31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어울림 스키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스키캠프에는 세종특별자치시시각장애인협회, 세종특별자치시다문화지원센터,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서구지회를 비롯한 자원봉사자 등 30명을 우선 모집해 캠프를 떠났다. 참가자들은 대한장애인스키협회 장애인스키학교 소속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아 안전교육을 비

롯하여 중증장애인 좌식스키 등을 배웠다. 장애 정도에 맞춰 이뤄진 개인별 지도로 쉽게 스키를 익히고 응용했다.

캠프에 참가한 조항백 씨(48세)는 “스키를 처음 타봐서 겁이 많이 났는데 막상 배워보니 정말 재미있었다”며,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종지장협 정금종 협회장은 “장애인들에게 체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다”며 이번 스키캠프의 개최의도를 밝히고, “앞으로 스키뿐 아니라 다양한 종목의 장애인 체육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나는 뉴욕의 우버 기사입니다”

청각장애인 기사 핀 루 씨

핀 루(29세)는 뉴욕시의 첫 청각장애인 우버 기사다. 뉴욕시에서 ‘우버X(모바일 차량 예약 이용 서비스)’ 기사로 일하는 그는 언뜻 보면 다른 기사와 별 차이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루가 모는 2011년형 녹색 혼다 어코드에 탑승한 승객들은 그가 건네는 메모지를 보고 놀란다. ‘귀가 들리지 않으니 목적지를 GPS에 입력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있기 때문이다. ‘ 선호하는 경로가 있으면 손짓으로 알려 달라. 질문이 있으면 어깨를 두드려 달라. 말할 게 있으면 글로 적어 달라’는 내용도 있다.

우버 측은 현재 미국에 루와 같은 청각장애인 기사 약 40명이 활동 중이며, 새로운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이런 운전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 푸저우에서 청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루는 10살 때 가족

과 함께 뉴욕 퀸즈로 이민 왔다. 2011년 뉴욕 로체스터공대 청각장애인 전문교육기관 NTID에서 회계학 학사 학위를 받은 후 약 2년간 뉴욕주 롬에서 미 국방부 회계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작은 도시에서의 생활에 진력이 나 다시 뉴욕시로 돌아왔다. 그 후 아예 진로를 바꿔 우버 기사가 됐으며, 가끔 우버 경쟁사인 리프트에서도 일한다. 지난해 7월에는 뉴욕 택시리무진위원회(TLC)가 발부하는 자격증도 땀다.

뉴욕에서는 농(deaf)과 난청(hard of hearing)을 지닌 장애인도 보청기나 대형 백미러 등을 갖춘다는 조건 하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처음 그의 차에 탄 승객들은 그가 듣지 못한다는 사실에 놀라움 아니면 우려를 나타낸다. 그러나 루는 자동차 경적소리로 필요한 맨해튼 시내에선 청각장

애가 오히려 득이 된다고 말한다. 운전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작동하는 특수 조명 같은 보조 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루는 평소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지만 승객들과는 눈을 맞추거나 미소를 짓는 다른 방식도 동원한다. 소셜미디어 앱 타임홉(Timehop) 창업자인 조나단 베게너는 샌프란시스코로 출장 갔을 때 우버 차량을 탄 적이 있는데 기사가 자기 말에 반응이 없어서 처음엔 의아했다. 하지만 곧 자신이 청각장애인이라고 안내하는 메모지를 건네줬고, 편안하게 목적지로 이동했다. 베게너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이었다고 말한다.

루는 우버 기사가 청각장애인 직업으로 괜찮다고 밝혔다. 서비스 자체가 기술에 기반하고 있어서 말을 못해도 승객과 상호작용하기가 쉽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뉴욕 최초의 청각장애인 우버 기사가 된 핀 루 씨. ©Wall Street Journal

고객평가 결과로 매긴 서비스 등급도 5점 만점에 4.82로 높아 승객과의 소통 불편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차를 몰며 올해 결혼할 약혼녀와 유럽으로 신히 여행 가기 위한 돈도 모으고 있다. 언젠가 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희망을 안고, 장시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으며 돈을 벌며 저축하고 있다.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창업하려 마음먹고 있는데, 그 때를 위한 종자돈 마련이 장기적인 목표다.

그는 수화를 세상에 알리는 데 우버 기사라는 지금의 직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그의 차를 탄 승객 대부분은 수화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이 알고 있는(혹은 휴대폰으로 막 검색한) 수화 동작을 해보일 때도 있다. 가장 흔한 건 “감사합니다”이다.



사라 와트의 아들 헨리. ©The Washington Post

내 아들 헨리 클래식은 22개월(2세)입니다. 그는 바니 공룡을 좋아합니다. 그는 누나의 머리를 끌어당겨 애정을 느끼고,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유아입니다.

장애인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 뿐

작가 사라 와트, 워싱턴포스트 통해 기고

헨리를 임신했을 때 초음파를 통해 척수 수막류(myelomeningocele)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치의는 아이의 신경분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부분적인 마비, 뇌수종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고, 휠체어에 아이를 태우고 다닐 미래를 떠올리면 우울해졌습니다. 솔직히 장애인에 대해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헨리가 태어나기 전에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벅속의 아이가 장애인이란 것을 안 후,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친구의 아들은 발달 지연이 있었고, 또 다른 친구의 아들은 다운증후군이었습니다. 자폐증과 아스퍼거증후군인 아이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내 이야길 듣고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헨리는 휠체어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고, 자라나며 어렵게나마 독립적으로 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뛰어다니는 아이와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뭐? 그것이 그가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단지 헨리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 것을 의미할 뿐이지요. 사람은 저마다 다르고 각기 다른 유형으로 생활합니다. 장애인들도 장애에 따

라 혹은 성격과 일 등에 따라 다르게 살아갈 뿐입니다. 헨리의 생활은 우리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극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은 헨리의 볼에 뺨을 비비며 함께 웃고, 그의 미소를 보며 행복해 합니다. 헨리는 우리 가족에게 선물입니다.

물론 헨리는 부모의 사랑만으로 자라기는 어려운 아이입니다. 위험한 의료 합병증 목록을 가지고 있고, 늘 조심해야 합니다. 척수 수막류는 항상 피곤하고, 치료비도 많이 듭니다. 장애 아이를 키우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더욱 활성화되고, 사람들의 편견도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와인테스터 화제

‘암흑 속의 맛’ 시음행사 성황

선천적인 시각장애인 청년이 캘리포니아 와인 생산단지 일대에서 특유의 후각과 미각을 동원한 포도주 감별 행사를 펼쳐 화제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와이너

리에서 열고 있는 월레 ‘암흑 속의 맛’ 시음 행사로 시각장애인 하비 웨들러(27세)가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새크라멘토 비(The Sacramento Bee)’가 2월 22일 보도했다.

이 행사는 참가자들의 눈을 가리고 포도주를 맛보게 한 뒤 품평을 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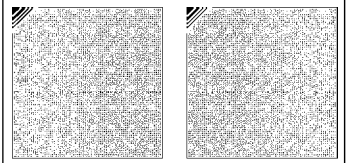
“그는 사람들이 와인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경계의 장벽을 허물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그가 이 지방 와인제조업자보다도 더 정확하게 와인을 감별한다”고 게이서빌 와이너리의 감독겸 회장 코리 베크는 말했다.

남보다 발달한 웨들러의 후각은 데이비스 시내의 여러 교차로 차이를 냄새만으로 어느 곳인지 정확히 맞출 정도다. 시각장애인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 석사 학위까지 따가며 열성을 쏟은 어머니가 특별히 훈련한 결과라고 한다. 웨들러의 어머니는 특수 지도

로 아들에게 시각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감각을 날카롭게 가다듬는 훈련을 반복했다. 최근 3일간의 시각장애인 교육 캠프를 무료로 운영하는 등 다른 장애인들을 위한 도움에도 나서고 있다.

어머니는 아들을 두고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왕성하고 무엇이든 냄새로 구별하려고 들며, 사람들과 대화를 잘 하는 아들이 적성을 살려서 세상을 탐색하고 더 발전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사용승인만 받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제거하기 일쑤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 중앙지원센터 박경준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점검 실시

사용승인 당시 설치했던 장애인 편의시설을 시설 주 임의로 해체하거나 없애는 등 관련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편의증진법)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 경기지원센터(센터장 김기호, 이하 경기센터)는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2014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사용승인 후 이용 중인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조사대상은 2013년도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중 시·군별 6~10곳을 임의 선정했다. 특히 대상시설을 선정할

때 편의센터와 협의 없이 사용승인을 득한 시설물이나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재협의 없이 사용 중인 건축물도 포함해 설치현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인 240개 시설은 2013년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의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92%로 매우 높았던 곳들이었다. 그러나 이번 현장점검

결과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겨우 53%에 불과했다. 사용승인 이후 40%에 가까운 건축물이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주관기관의 조치가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3년도 조사 결과보다 6% 정도 더 떨어진 수치라는 것이다.

대표적 부적정 사례

유형① 장애인 편의시설 임의제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거〉

위 사진에서 보듯이 한 상가건물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주차라인을 삭제하고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주출입구 경사로 제거〉

위 사진은 건물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해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후에 경사로를 제거하고 주차구역을 변경하는 등 임의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없애 버렸다.

유형② 장애인 편의시설 사용불가



좌측 사진은 점자블록으로 주출입문까지 유도했으나 출입문 앞뒤로 장애물을 세워 가로막고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의 통행이나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 만약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을 따라간다면 장애물에 부딪히고 출입문을 찾지 못해 당황할 것이 분명하다.

우측 사진에서는 가득 쌓인 상자 옆에 대변기와 손잡이 일부가 보여 장애인 화장실임 알 수 있다. 하지만 물건으로 가득 찬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 이용이 불가능하다.

유형③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소홀



위의 사례는 설치 됐던 점자블록이 기존 바닥 위에 붙이는 부착형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탈락돼 없어진 경우다. 애초에 탈락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거나 재시공 등의 보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여주기 식으로 설치한 후, 점자블록이 없는 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편의시설에 대한 시설주의 의식 부재를 알 수 있다.

추가로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경기센터와 협의과정 없이 건축하거나 사용승인이 내려져 설치가 부적절한 곳들이 있었다. 아예 설치조차 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보였다. 이는 전체 부적정 사례의 15%나 될 정도로 높은 수치이므로 개선이 시급하다.

경기센터 조사 담당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연 5회 이상의 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적정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시설주의 문제의식도 계속 낮아지고 있기에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및 운영시스템을 갖춰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장애인등의 편의시설사전점검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같은 문제가 반복돼 이에 대한 사후점검을 포함한 조례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지자체의 건축물 수가 워낙 많아 불법 건축물의 적발 및 관리·감독이 힘든 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추후 지자체와 우리 편의센터가 함께 사후점검 시스템 구축과 필요인력을 확보하고 장애인 사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사회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고용상담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생

법정퇴직금은 3가지 필수요건 갖추면 지급대상



1991년 고용의무제도 시행 이후 장애인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어렵게 노동 시장에 진입한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50.8%는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에 종사(2011년 장애인실태조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상담을 했던 28세의

청각장애 3급 장애인 이 모 씨도 건설현장에서 2년 정도 근무한 일용직근로자다. 한 달에 18일 정도 근무했고, 사정이 생겨 그만두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피상담자는 2년을 근무했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회사 측은 일용직이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정말 그러한 것인지 우리 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 문의를 해왔다.

일용직이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가 반복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

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해석해 1년 이상 근무 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3가지 필수요건(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갖추었다면,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에 관계없이 지급대상이 된다.

여기서 상근성이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

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성이란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을 말하며, 종속성은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를 보더라도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를 해야만 퇴직금 발생요건이 충족되는

【관련판례 요지】 일용인부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이치는 없다. 따라서 비록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근무했지만 수년을 계속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대법 78다2089, 1979.01.13.]

▲일용직근로자의 퇴직금 관련 판례. ©조호근

것이 아니라,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상담자의 경우처럼 건설현장에서 동일한 사용자와 약 2년 동안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민원상담

임상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장)



Q) 2015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이 확대되었다면서요?

A) 지난해와 달리 사업규모(총 14,879개)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형일자리 4903명, 복지일자리참여형 8133명, 특수교육-복지연계형 877명 등 총 9010명,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703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263명입니다. 보수면을 살펴보면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는 일반형

일자리(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그 대상이며 복지 및 일반행정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전담 지원 등) 근로조건은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월 116만 7000원으로 지난해 108만 9000원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보급하는 복지일자리. 참여형의 경우 기존의 도서관 사서 보조, 우편물 분류, 급식보조 등에 교통약자 셔틀버스 승하차보조, 건강검진센터 보조, 대형서점 도서정리 직무가 신규로 추가되면서 총 24가지 분야가 되었습니다. 역시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대상이며, 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 월 31만 3000원을

장애인고용(II) 지원정책

받습니다. 특수교육-복지연계형은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으로 도서관 사서 보조 등으로 보수 역시 주 14시간 이내 월 31만 3000원 수준입니다.

Q) 취업이 어려운 장애 유형에 특화된 직종의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는 특화형일자리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A) 먼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으로 안마사 자격을 갖고 있는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18세 이상 등록시각장애인 중 의료법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고 근로조건은 주 5일(25시간) 월 1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는 것으로, 식사 도와드리기, 실내·외 보행 및 이동 도와드리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이 대상이며, 주 5일(25시간) 1일 5시간 업무를 통해 월 73만 1000원의 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위 사업들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보수 지급 시 인건비에서 4대보험 본인부담금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장애인일자리사업에 1년 이상 참여할 때 일반사업장처럼 퇴직금을 지급해 주나요?

A)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참여했다면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 받습니다. 단, 월 56시간 미만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계속 참여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일반형일자리 경우 134만 160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115만 350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84만 900원이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일자리사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

정부3.0 따라 장애인고용 현장 실무자와 소통 활성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은 2월 4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 고용 현장 실무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공단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3.0에 따라 장애인고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설명회는 2015년 변경된 장애인고용제도와 취업지원서비스 등 공단의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공단은 작년에 개소한 '서울맞춤훈련센터'와 올해 설립 예정인 '발달장애인지업능력개발

훈련센터'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변화를 알렸다. 발달장애인지업능력개발훈련센터는 현행 5개 직업능력개발원과는 별도로 서울시교육청 관할 내 설립해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워크투게더센터 확대, 중증장애인인턴제 도입 등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고용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중증장애인인턴제의 경우 고용률이 낮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체 근무 경험을 제공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정규직 전환을 돕는 것을 목표로 신설됐다. 인턴기간은 최

대 6개월이며 채용 사업체에 약 정임금의 80%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 유지시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월 65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고용부담금은 월 67만 원이었던 부담기초액을 7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사업주 훈련보조금도 1인당 1일 19,110원에서 19,340원으로 인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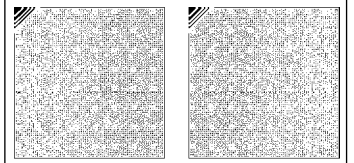
공단 권기성 고용촉진이사는 "앞으로도 장애인 고객과 현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고용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 일자리 발굴 노하우 담긴 책 발간 『내일을 위한 Job, 함께 나누는 꿈』

노하우를 담은 『내일을 여는 Job, 함께 나누는 꿈』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책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 현장지침서로 기능하길 바

라며,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사전에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뒀다.

이 책은 장애인을 위한 미래 직업으로 △발달장애인 캐스트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장년장애인 디지털 환경지킴이 △청각장애인 웹 퍼블리셔 △장애

인 여행상품개발자 △장애인 IT 네트워크 전문가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캐스트(cast)는 테마파크에서 일하는 직원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공단은 발달장애인이 대기업 테마파크에 캐스트로 취업하는 과정을 충실하게 보고서에

담았다.

공단 박승규 이사장은 "장애인 직업영역개발 성공사례가 실제 고용시장으로 확산되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개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내일을 여는 Job, 함께 나누는 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edi.kead.or.kr>)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일자리 발굴 노하우를 담은 『내일을 위한 Job, 함께 나누는 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발굴

독 자 퀴 즈

1.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5월 9일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제23회 서울국제○○○○○○대회'를 개최한다. 빈 칸에 들어갈 말은?
2. 최근 기관 이름을 종로구립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으로 바꾸고 제2의 도약을 꿈꾸는 이 사업장은? 서울 종로5가에 위치, 지하철택배와 카페테리아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힌트 : 정답은 기사 속에 있습니다.

- 독자의견 -

중도장애인의 수기나 직업재활 성공 미담을 발굴해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선

이동 약자들에 대한 정부의 동향과 중증장애인의 애환을 포함한 장애인 자립에 대한 전반적인 취재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장병철

응모요령

응모요령 : 우편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 이메일 : news@kappd.or.kr>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지난호 정답
신년인사회
도너츠

당첨자

박종선 전남 목포시
장병철 경남 사천시
김영신 경남 거창군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쉬는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로만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답례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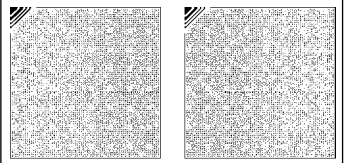
천연물결렌징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십니까?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5년 4월 1일 ~ 6월 5일

문의전화 : 1588-2670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크게 지체·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분야로 분류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각 장애유형별로 적합한 보조기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장애유형별로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보면, 지체·뇌병변장애 분야는 터치모니터,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독서보조기 등 12종의 품목을 지원하는 반면 시각장애 분야는 점자정보단말기, 독서확대기, 화면 낭독·확대 소프트웨어, 데이지플레이어 등 40종을 지원한다. 청각·언어장애 분야는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언어훈련 소프트웨어 등 16종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4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각 지자체 담당부서(접수처 문의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1588-2670)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체·뇌병변 유형에 대한 정보통신보조기기 품목

가장 신청이 많은 품목은 정전식 터치모니터다. 마우스나 키보드 조작이 어려운 장애인이 멀티터치펜을 이용해 모니터 화면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보조기기다. 일부 제품은 멀티터치를 제공해 스크린 확대 및 축소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디지털 TV기능이 포함된 제품도 있다.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로는



정전식 터치모니터 ©한국정보화진흥원

빅키 키보드와 키가드, 엔에이블러 조이스틱, 엔에이블러 트랙볼이 있다. 손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 자판의 크기가 큰 빅키 키보드를 사용하고, 키보드에 가드를 설치해 자판을 잘못 누르는 것을 방지한다. 팔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 엔에이블러 조이스틱과 엔에이블러 트랙볼을 사용해 마우스 기능을 대체하



빅키 키보드 ©한국정보화진흥원

고 있다.

상지 및 하지를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스마트나브4AT와 헤드마우스익스트림을 통해 마우스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적외선 및 난반사스티커를 머리 또는 안경(모자)에 부착하여 머리의 움직임을 통해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면서 컨트롤 할 수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안내

구 분	내 용	비 고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1~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역	-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본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 부담금의 50% 추가지원(본인 부담금 10%)	
보급품목	-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소프트웨어 * 보급제품은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에서 결정	2014년 기준 보급품목 종류 - 지체·뇌병변장애 12종 - 시각장애 40종 - 청각·언어장애 16종
보조기기 전시 및 체험	-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관 운영 * 한국정보화진흥원 1층 - 상시운영 - 정보통신보조기기 순회 전시회(신청기간내)	
신청	- 접수처 : 지자체 담당부서 * 접수처 문의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1588-2670) - 지자체에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제출	
활용 및 사후관리	- 수혜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조사 실시 - 보조기기 무상수리(무상수리 기간내) * 무상수리기간 이후는 납품업체의 A/S규정 준용	



키가드 ©한국정보화진흥원



엔에이블러 조이스틱 ©한국정보화진흥원



엔에이블러 트랙볼 ©한국정보화진흥원

이보다 더 중증인 장애인의 경우 입술을 움직여 마우스 역할을 대체하는 인테그라마우스 플러스와 조우스2가 있다. 두 장치는 입술의 움직임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호흡을 통해 마우스의 클릭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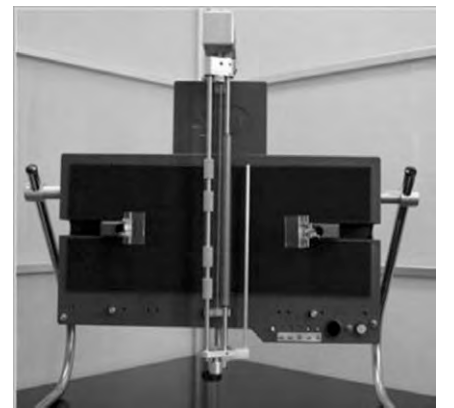


인테그라마우스 플러스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우스2 ©한국정보화진흥원

중증 장애인의 학습을 돕는 보조기기로는 페이지터너리더블3가 있다. 중증 장애로 인해 사용자 본인이 직접 책을 들고 책장을 넘길 수 없을 경우 페이지 자동 넘김 기능의 독서보조기를 이용하면 된다. 보조인이 보조기기에 책을 세팅하면 리모콘이나 스위치를 통해 장애인이 보고자 하는 페이지를 조작할 수 있다.



페이지터너리더블3 ©한국정보화진흥원

갈수록 지체·뇌병변 유형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신청자가 줄고 있는데 이는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부족도 있겠지만, 장애유형에 맞는 특화된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부재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전국적으로 운영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이뤄져야 하고, 국내 정보통신보조기기 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의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접근 증진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복지마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개편만으로는 불충분



OECD의 보고에 따르면 장애인 정책의 세계적 추세는 현금급여를 위주로 하는 '보상' 중심의 정책이 다소 퇴조하고 노동시장 '통합'을 통한 고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

인 고용 현황은 국제적인 통합 흐름과 달라 보인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경쟁노동시장의 높은 취업 장벽 때문에 구직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불안정한 고용지위에 놓여 있으므로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국가정책은 장애인의 삶의 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인의 노동시장 통합과 소득보장이라는 큰 틀 아래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제도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활동이라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사회적·문화적·환경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직업은 기능적 능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활동으로 대두되고 있다. 당연히 사회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재활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자립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장애인이 직

업을 갖는 것은 재활에 가장 중요하며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취업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야를 보면 1차 산업 및 단순노무직에 심하게 편중돼 있다. 반면 관리직이나 전문직 또는 준전문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다소 낮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진행했다. 발달장애인직업훈련지원센터를 직업재활시설유형에 추가하고 근로장애인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었으나 현장의 목소리는 불편하다. 직업재활

시설의 유형을 추가 개편하거나 시설의 근로장애인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장애인의 노동권과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권리에 한발자국이라도 더 내딛을 수 있는 것일까. 또 이미 2007년에 직업재활시설유형을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장으로 개편했는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의 핵심은 장애인 고용에 있다. 실제로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으로 재정자원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개인적으로도 자립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을 확대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반노동시장에서 장애인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우선해야 한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일반사업장으로 직업적 전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새 보 란 칼 럼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김장환 협회장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의 미래를 열자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로 인식하는 획일적인 시각과 시선이 팽배하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로 나타나 장애인이 사회의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분명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는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했고 또,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항상 깨어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의 인권, 자기결정과 자주·독립, 그리고 사회적 환경을 강조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권리에 기초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인 장애인 당사자주의로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갖고 장애인 복지 발전과 함께 위상을 정립할 수 있

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변화의 내용을 신중하게 경청하면서 앞으로 계획과 행동의 변화를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희망과 미래가 있는 조직이다.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 단체로 장애인들의 고통과 시련을 같이 하며 자라왔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세로 여러 가지 고충과 어려움을 해결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은 많다. 사회가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구조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장애인들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욕구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점을 해결하도록 노력



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며 연구해야 한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발전된 조직으로 변모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더욱 밝고 힘 있는 사회가 되게끔 경제 및 정치 발전 그리고 성숙한 국민적 노력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더불어 잘 사는 복지 사회로의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63호 2015년 3월 23일

회장·발행인/김광환 편집장/오창석 기자/이정희 발행처/(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news@kappd.or.kr

대표전화 : (02)796-4280 FAX : (02)796-4281

구독문의 : (02)2289-438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15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제23회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2015년 5월 9일(토) 오전8시 잠실올림픽주경기장

종목. 풀 | 하프 | 5km | 5km어울림

※비장애인 5km어울림 참가가능
(참가비 무료, 완주메달 및 기념티 제공)

온라인 참가신청

www.seoul-wheelchairmarathon.or.kr

Tel. 02-998-9013 Fax. 02-998-9012

주최

KAPPD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SAD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Seoul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KAFD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주관

S.I.W.M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조직위원회
Seoul International Wheelchair Marathon Organizing Committee

후원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NPS

국민연금공단

KOSA

대한장애인체육회
Korea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KBS

국립한경대학교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협찬

신한금융그룹

사랑의열매

한국장애인개발원

재정후원

KSPOT 국민체육진흥공단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공식음료

POCARI SWEAT